

‘여름방학, 늘봄학교 농촌체험하러 가자’

전북교육청, 도 농기원과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
검증 거친 16개 농장·도내 69개교 88개 학급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농업기술원과 협력해 늘봄학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교육농장과 연계해 학생들이 자연과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전북농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친 16개 교육농장이 참여한다.

여름방학 기간 총 69개교에서 88개 학급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1학기에는 5개 교육농장이 참여해 13개 학급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높았던 만큼 참여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주고자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참여 강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프라를 교육 자원으로 전환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미래교육

2026년 ESG·지속가능
발전교육 운영학교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ESG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학교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 역할을 길러주는 게 핵심이다.

운영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ESG 교육은 초등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를 하나의 사회로 보고 환경·사회적 책임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우는 교육이 이뤄진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래 교육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학생은 진로와 연계한 실천적 소양을 함양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인권, 소비와 생산, 불평등, 파트너십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한다.

학생 수업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직원 대상 연수도 운영하며, 수업은 강사단과 교사의 협력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 희망학교는 오는 25일까지 전북교육청 공모사업시스템(www.joe.go.kr/gongmo/index.jo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상반기

체험형 청렴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18일 이틀간 강진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상반기 체험형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교육청 최초 청렴전문기관과 연계해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청렴 업무 담당자 및 부패취약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렴 정책 공유 및 청렴특강 △청렴과 연계한 마음챙김·힐링 체험 △청렴 소통시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실천적 청렴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희망자 사전 모집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또 청렴업무로 인한 피로 해소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훈영 감사관은 “이번 교육은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지닌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며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과 힐링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16개 학교 비 피해 전북교육청, 비상체제 돌입

진안 주천중 등 2곳 단축수업
현재 응급 복구작업은 진행중

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일부 학교가 누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비 피해를 본 학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4곳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도내 유치원 1곳, 직속기관 1개원도 비 피해를 봤다.

지역별로는 전주 1곳, 군산 2곳, 익산 5곳, 정읍 1곳, 김제 1곳, 완주 1곳, 진안 2곳, 임실 1곳, 순창 1곳, 고창 1곳, 부안 1곳이다.

유형별로는 단순 누수가 7곳, 낙뢰는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을 포함해 11곳이다.

현재 응급 복구작업은 진행중이다. 과학교육원, 이리석암초, 원광중, 원광고, 임실 삼계중, 부안 하서초와 계화중은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학사일정이 조정된 곳은 진안 주천중, 임실 삼계중 등 2곳으로 단축수업이 진행됐으며, 오후 2시에 하교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피해상황 접수 및 응급복구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교직원 안전과 학교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9일까지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제2회 전북 로컬벤처 비즈니스 포럼
전주대학교가 지난 16일 전주남부시장 모이장에서 제2회 전북 로컬벤처 비즈니스 포럼 및 제6회 포용적 도시혁신포럼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여름방학, 학업중단 위기학생 새출발 기회

전북교육청, ‘뉴런’ 프로그램 28일부터 3주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런(New-Ru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내 수탁 경험이 있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 학교 복귀 유도, 학생 주도성 강화,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등을 목표로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 및 정서적 안정, 자존감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주제별 선택형 운영 방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온라인(https://naver.me/5ixgFex7)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지원센터(063-253-2269)로 직접 전화 신청할 수도 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의미 있는 방학 기간을 보내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장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운영 결과를 안내하고, 김수연 경인교대 특수(통합)교육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지수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전북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도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14개 교육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은성 기자

실리콘 기반 근적외선 광센서 성능 ‘UP’

전북대-서울시립대 연구팀, 차세대 광센서 기술 개발
삼성전자 산학협력 연구 성과,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김기현 교수 연구팀과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민 교수 연구팀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이 실리콘 기반 근적외선(NIR) 광센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광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재료 및 소자 분야의 저명학 국제 학술지인 ‘Small Science’에 게재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공동 연구팀은 높은 CMOS 공정 호환성과 저비용이라는 실리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근적외선 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 구조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스캐럽-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탠덤 구조’를 갖춘 새로운 형태의 근적외선 광센서를 구현했다.

이 센서는 상용 CMOS 공정을 활용해 실리콘 기반 위에 고종횡비(high aspect ratio) 스캐럽 나노선을 형성, 여기에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결합함으로써 빛의 공진 현상을 극대화해 기존 실리콘 기반 센서 대비 우수한 검출 성능을 확보했다.

스캐럽 구조는 빛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실리콘으로 검출이 어려운 1,100nm 근처의 근적외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장파장 흡수 특성을 향상시

키고 실리콘과의 밴드 정렬을 최적화 해 광전 변환 효율(IPCE)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저온 스프레이 코팅 방식으로 스캐럽 나노선 구조에 균일하게 증착이 가능하며, 대면적 제조 공정과의 호환성과 경제성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이에 자율주행용 LIDAR, 우주 탐사, 방위산업 등 고성능 근적외선 센서가 요구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실리콘 기반 저비용 근적외선 광센서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실리콘-양자점 계면의 안정성과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는 후속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제18회 한·중 고분자 심포지엄 이 지난 13~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열렸다.

한·중 고분자 석학들, 전북대서 최신 연구성과 공유

한·중 고분자 심포지엄 개최… 공동연구 가능성 모색

‘제18회 한·중 고분자 심포지엄’이 지난 13~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열렸다.

전북대학교 G-랩프사업단과 (사)한국화학공학회 고분자부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고분자 소재’를 주제로 국제 연구자 12명과 국내 연구자 11명 등 총 23명을 초청, 다양한 강연을 펼쳤다.

특히 14~15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주요 학술 교류에서는 고분자 나노구조 설계, 기능성 고분자, 고분자 기반 에너지 소재, 지속가능 고분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국제 초청연사로는 중국 푸단대학교 웨이하 리(Wenhua Li) 교수가 블록 공중합체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다양한 연속 네트워크 위상을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베이징화공대학의 샤오리 선(Xiaoli Sun) 교수(PVDF 결정화 구조 제어), 양양 가오(Yangyang Gao) 교수(고분자 복합재의 다중 스케일 시뮬레이션)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의 교류 시간도 가졌다.

국내에서는 중앙대 이종휘 교수(복합 고열압치료제 결정화 연구), 전북

대 정광운 교수(지향성 열전달 소재를 위한 이방성 액정 네트워크), 전북대 김정곤 교수(친환경 고분자의 화학적 재활용), 서울시립대 김민 교수(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표면 설계) 등이 강연을 통해 한국 고분자 과학의 경쟁력을 알렸다.

김희선 G-랩프사업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 양국의 고분자 분야 선도 연구자들이 참여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전북대 G-랩프사업단 및 중견연구자의 우수 연구성과도 함께 조명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16일 총장실에서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전기안전공사와 글로벌사업 성공 ‘맞손’

산학연 협력체계 본격 가동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6일 총장실에서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남화영 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연구인력 상호 교류, 연구용 기자재 공동 활용 등 연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학술회

의를 공동 개최하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현장형 교육 강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의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협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과 기술,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의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7월 학교 구성원 인권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장에서 도내 교직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인권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인 최초로 폴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강현원 사진기자가 강사로 나서 ‘인권중심의 한국 문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 기지는 1993년 미국 LA 타임즈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현장에서 기록한 사진 보도로 폴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에도 전 세계 인권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언론인이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한국 사회의 인권 흐름을 세계 인권 보도의 시각과 연결해 소개했다.

강 기지는 “한국 문명은 공동체와 생명의 존엄을 중시에 두고 인권을 실천해 온 역사”라며 “특히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권의 목소리가 왜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특강은 한국 사회의 역사와 인권 감수성을 함께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 공동체 안에서 존엄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